

# 김유정·공명 “모든 계절 함께한 ‘홍천기’, 오래 기억 남을 것”

## SBS 월화극 ‘홍천기’ 종영 소감

### 조성하 “공명, 늘 밝고 좋은 모습”

배우 김유정이 SBS 월화드라마 ‘홍천기’를 마치며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유정은 27일 소속사 어썬이엔티를 통해 “추운 겨울부터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까지 촬영했고, ‘홍천기’와 잘 어울리는 가을에 끝이 났다. 모든 계절을 함께 한 ‘홍천기’가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다”며 “화지에 먹이 스며들 듯 여러분들 마음에도 저희 드라마가 스며들어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란다”고 종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소중한 작품에 함께 했던 모든 배우들, 스태프들, 신령한 화공 홍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작가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사랑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김유정은 극 중 신령한 화공 ‘홍천기’ 역으로 열연했다. 그는 촬영 수개월 전부터 한국화 연습을 하며 준비, 현재 화공 홍천기에 완벽히 동화돼 극의 보는 재미를 더했다. 특히 설렘을 유발하는 로맨스로 안방극장의 사랑

을 받았고, ‘해를 품은 달’, ‘구르미 그린 달빛’에 이어 ‘사극 여신’의 저력을 입증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최종회에서는 홍천기가 마왕의 공격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어음을 완성시켰고, 결국 마왕의 봉인에 성공했다. 마왕의 저주가 풀리면서 홍천기는 시력을 되찾았고, 홍천기와 ‘하림’(안효섭)은 부부의 연을 맺으며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김유정은 현재 넷플릭스 영화 ‘20세기 소녀’를 차기작으로 확정 짓고 촬영 중이다.

배우 공명도 이날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홍천기는 세계 영광스러운 도전이었다”고 종영 소감을 전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장태유 감독님의 사극을 봐왔는데, 이렇게 함께 작업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큰 영광이었다”며 “추운 계절이 더워질 때까지 모두 함께 열심히 만들었다. 사전 촬영을 마치고 ‘홍천기’가 방영할 때는 시청자 입장에서 작품을 봤는데, 끝이 다가올수록 아쉬움도 많이 남더라”라고 밝혔다.

공명은 극 중 ‘양명대군’으로 분했다. 그는 “연기의 재미를 느끼게 해줬던 인물”이라며 “양명대군은 겉으로는 밝게만 보이지만, 외로움을 감추고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다. 극이 진행될수록 고인이 깊어지면서 대군으로서의 카리스마를 보여야하는 순간이 점점 많아졌다. 이를 표현하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홍천기’(김유정)와의 첫 만남을 꼽은 공명은 “김유정 배우와의 첫 촬영이기도 했고, 양명대군이 홍천기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중요한 장면이라 긴장했는데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천기’는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더욱 오래 기억될 것 같다”며 “작품이 끝날 때마다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만큼 더욱 성장하는 배우가 되어 꾸준히 좋은 작품으로 인사 드리겠다”고 말했다.

공명은 최근 첫 방송한 tvN 예능 ‘바퀴 달린 집3’에도 출연 중이다. 그는 “주변에서도 반응이 좋으며 축하 인사를 많이 보내주신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홍천기’에서 군주인 ‘성조’로 출연한 배우 조성하도 이날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세 계절 동안 함께 열심히 촬영에 임한 모든 배우 동료, 스태프들께 감사드리고 ‘홍천기’를 사랑해주신 모든 시청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종영 소감을 밝혔다.

조성하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날 영하 16도 이상 추운 날씨 속, 3일간 밤 촬영으로 마왕 봉인을 찍던 날이 기억난다. 강풍기의 찬 바람이 억세게 느껴졌던 첫 촬영이었다”며 “첫 촬영부터 마왕과의 강렬했던 대면이라, 촬영 전 마왕의 외모부터 풍겨지는 오라를 어떻게 느껴야 할지 고민했다. 다행히 촬영현장에서 감독과 스태프들이 시각적으로 준비해준 덕분에 접근이 편했다”고 말했다.

후배 배우들과의 호흡도 언급했다. 그는 “함께 출연한 배우들, 감독과 스태프들 모두 시작부터 참 고생이 많았다”며 “저와 촬영 신이 많았던 공명 배우는 현장에서 늘 밝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고맷다. 좋은 동료이자 벗인 장현성 배우와도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 현상이 즐거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차기 작품으로 인사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좋은 작품으로 곧 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하는 ‘홍천기’에서 마왕으로 인해 혼란한 세상 속, 원래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군분투하는 ‘성조’를 연기했다.



## 윤계상 주연 ‘유체이탈자’, 할리우드 영화로 리메이크

### ‘트랜스포머’·‘지.아이.조’ 시리즈 메인 프로듀서 제작

다음 달 개봉을 앞둔 윤계상 주연의 추적 액션 ‘유체이탈자’가 할리우드 영화로 리메이크된다.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는 ‘트랜스포머’, ‘지.아이.조’ 시리즈의 메인 프로듀서 로렌조 디 보나벤츰라가 ‘유체이탈자’ 리메이크를 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영화는 기억을 잃은 채 12시간마다 다른 사람의 몸에서 깨어나는 한 남자가 모두의 표적이 된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다.

범죄 액션 영화의 흥행 역사를 새로 쓴 ‘범죄도시’ 제작진과 악랄한 조직 보스 ‘장천’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윤계상이 다시 만나 화제를 모았다.

보나벤츰라 영화를 보고 “유체이탈자’는 최근 몇 년간 접했던 작품 중 가장 혁신적이고 예기치 못한 놀라운 액션이 가미된 독특하고 흥미진진한 작품이다. 이러한 독창적인 작품의 할

리우드 리메이크를 제작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흥분되고 기쁘다”는 감상을 밝혔다.

로렌조 디 보나벤츰라 마이클 베이 감독의 초대형 블록버스터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흥행을 이끈 제작자다. 11년 동안 총 5편에 걸쳐 개봉된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세계적으로 43억 달러가 넘는 흥행 성적을 올리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

또 최정에 특수 부대인 ‘지.아이.조’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지.아이.조’ 총괄 제작을 맡았다.

그가 프로듀서로 활약한 ‘지.아이.조’의 경우 배우 이병헌이 합류해 국내에서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유체이탈자’의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케이무비엔터테인먼트 측은 “12시간마다 몸이 바뀌는 액션물이라는 콘셉트와 ‘악인전’, ‘범죄도시’ 제작진이라는 것만으로도 해외 세일즈 초기부터 미국, 유럽, 중국, 남미, 인도 등의



대표 제작사들과 리메이크 논의를 적극 진행했다”며 “보나벤츰라 페루에서 새로운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촬영 중인 상황에서도 화상 미팅을 하는 등 영화를 확인하자마자 확신을 가지고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리메이크 의지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다음 달 24일 개봉한다.

## 이준익 감독 ‘자산어보’ 영평상 작품상…설경구 주연상

### 다음 달 10일 시상식

이준익 감독의 영화 ‘자산어보’가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영평상)에서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등 4관왕을 차지했다.

26일 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제41회 영평상 수상작(자)을 발표했다.

‘자산어보’는 작품상과 남우주연상(설경구), 각본상(김세겸), 국제비평가연맹 한국본부상 등 4개 부문을 안았다.

류승완 감독의 ‘모가디슈’는 감독상(류승완)과 남우조연상(허준호), 촬영

상(최영환), 음악상(방준석)을 받아 역시 4관왕에 올랐다.

여우주연상과 조연상은 모두 세자매의 몫이었다. 문소리가 주연상, 김선영이 주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소리도 없이’의 홍의정 감독이 신인감독상을, ‘혼자 사는 사람들의’ 공승연이 신인여우상을, ‘메이드 인 루프탑’의 이홍내가 신인남우상을 받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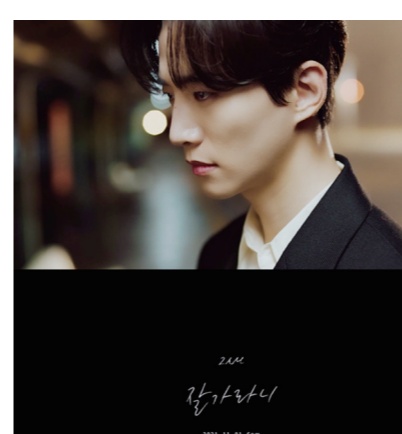
기술상은 ‘승리호’의 시각효과 담당 정성민과 정철진에 돌아갔고, 박윤진·김미조 감독은 독립영화지원상을, 정우성은 신인평론상을 수상하게 된



다. 원로배우 윤일봉은 공로영화인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다음 달 10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다.

## 2AM, 박진영 자작곡 ‘잘 가라니’ 뮤비…눈물 맺힌 이준호



### 다음달 완전자 앨범 발표

(Ballad 21 F/W)의 두 번째 타이틀곡 ‘잘 가라니’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앨범은 JYP 수장 박진영 자작곡인 ‘잘 가라니’와 하이브 의장 방시혁의 곡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를 더블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다.

공개된 영상에는 비 내리는 기차역 플랫폼 안, 이준호가 멍하니 서 있다. 이준호는 감정을 억눌러보지만 이내 눈물이 맺히는 섬세한 감정 변화를 보여줬다.

연습생 때부터 2AM 멤버들과 인연이 깊은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

호가 드라마 촬영 중임에도 뮤직비디오 남자주인공으로 나서 의리를 과시했다.

더불어 음원 일부도 공개됐다. 멤버 조권은 서정적인 멜로디 위에 ‘잘 가라니’라는 목소리를 엮었다.

2AM은 컴백을 앞두고 지난 25일 더블 타이틀곡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했다. 이번 27일 ‘잘 가라니’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함에 따라, 두 뮤직비디오의 스토리가 연결되는 구성임을 보여줬다.

한편, 2AM은 오는 11월 1일 7년 만의 완전자 앨범 ‘Ballad 21 F/W’를 발표한다.

## 백지영, ‘연모’ OST 합류…왕세자 이휘의 마음 담아

### 막강한 라인업 완성

가수 백지영이 ‘연모’ OST를 통해 극을 완성시켰다.

26일 소속사 트리아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수 백지영이 KBS2 드라마 ‘연모’ OST ‘이프 아이(IF I)’를 발매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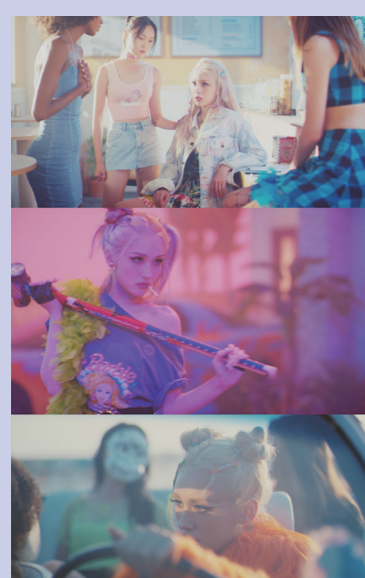
발라드 곡 ‘이프 아이’는 왕세자 이

휘(박은빈)의 심정을 그려냈다. 남장 여자 왕세자이기에 사랑 앞에 솔직할 수 없고, 소란스러운 마음을 숨겨야만 하는 이휘의 감정을 온전히 담았다. 백지영은 그동안 많이 보여주지 않았던 가성을 사용해 슬픔을 극대화했다.

앞서 드라마 ‘연모’ OST에 슈퍼주니어R-KRY, 린 등이 참여해 백지영과 함께 막강한 라인업을 완성했다.



## 전소미 ‘XOXO’ 뮤비 걸크러시 폭발… 29일 발매



### 첫 번째 정규 앨범, 뮤직비디오 티저공개

을 통해 전소미 첫 번째 정규 앨범 ‘XOXO’의 동명의 타이틀곡 ‘XOXO’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했다.

공개된 뮤직비디오 티저 속 전소미는 망치로 차를 부수며 등장한다. 마치 한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연상케 하는 카체이싱 장면은 걸크러시 매력을 폭발시켰다. 특히 전소미는 화려한 액세서리, 네일 디자인 등 과감한 스타일링을 찰떡 소화했다.

또 전소미는 흡인력 있는 자연스러운 표정 연기를 펼쳤다. 뿐만 아니라 영상 끝부분에서는 ‘XOXO’의 음원이 일부 공개돼 전소미의 컴백을 기다리고 있는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XOXO’는 사랑스러운 제목과 대비되는 가사의 내용이 인상적인 곡

으로, 이별의 상황 속에서 사랑했던 연인을 거리낌 없이 떠나보내는 내용이 가사의 주를 이룬다.

제목인 ‘XOXO’는 편지나 메시지의 마지막에 ‘사랑을 담아’라는 의미를 담아 덧붙이는 관용적 표현을 의미한다.

데뷔곡 ‘버스데이(BIRTHDAY)’와 ‘왓 유 웨이팅 포(What You Waiting For)’, ‘덤덤(DUMB DUMB)’까지 3연속 히트에 성공하며 ‘솔로퀸’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한 전소미는 이번 앨범으로 또 한 번 자신의 막강한 존재감과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전소미의 첫 번째 정규 앨범 ‘XOXO’는 오는 2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가수 전소미가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하며 컴백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은 지난 25일 오후 7시 공식 유튜브 채널